

차 오 림

2015년 제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5년 12월 14일(월) 16:30
- 장소 : 오월뉘페

2015년 제4분기 차오름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5. 12. 14(월) 16:30	장 소	오월뷔페
참석현황	이원근, 윤철웅, 박지영 박항규, 장선미, 추봉식 (불참 : 김학영, 나병호, 임희연)	기 록 자	명다혜(간호사)
운영위원 구성인원	-. 대표(1명) : 이원근 -.시설종사자 대표(1명) : 박지영 -.보호자 대표(1명) : 장선미 -.후원자 대표(1명) : 추봉식 -.전문가 대표(1명) : 나병호 -.시설장(1명) : 윤철웅 -.이용인 대표(1명) : 박항규 -.공익단체(1명) : 김학영 -.관계공무원(1명) : 임희연 운영위원 총 6명 참석		
회의안건	1. 4/4분기 주요 사업 실적 및 후원금(품) 보고 2. 201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3. 2016년 운영계획 토의 4.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		

- 회 의 내 용 -

▶ 성원보고

○윤철웅 위원 : 바쁘신 와중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2015년 송년회로 운영위원회의를 외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함께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 이용인 및 종사자들의 사기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박지영 위원 : 차오름 운영위원 9명중 과반수이상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제4분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성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원근 위원장 : 2015년의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동장군이 기승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4분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 1호 안 : 2015년 4/4분기 주요 사업 실적 및 후원금품 보고

○박지영 위원 : 1호 안건으로 4/4분기 주요 사업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매출현황입니다. 4/4분기 매출은 10월 54,441,780원, 11월 52,577,960원, 12월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지만 21,622,51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12월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특가래와 눈삽매출이 상승되었으나 주거래 업체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도 발주서를 요구받았으나 국민안전처의 낙찰차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납품을 하게 된다면 순수매출만 30,000,000원 이상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회계결산입니다. 현재 세입·세출이 1,479,795,807원이고 차기이월금은 102,079,474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의 내역은 12월 인건비, 마케팅사업비 및 자부담 등 사업이 마감되지 않은 관계로 102,079,474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분기 후원금품 보고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분기에는 음료수와 컴퓨터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지원받은 컴퓨터 2대는 현재 이용인 휴게실과 다목적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인들이 휴식시간에 쉴 곳이 여의치 않았는데 이번 개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인들의 쉴 공간을 만들면서 휴게실에서 PC이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식자재 업체인 CJ프레시웨이에서 후원하여 주었습니다.

네번째, 이용인 무료이동 진료를 12월 8일 시설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분기에 진행되었던 의정부 의료원 무료이동 치과진료를 4분기에는 내과, 한방과 무료진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9명의 이용인이 채혈, 소변, 예진을 통해 평소 불편한 점을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며 즉시 약 조제가 이루어져 평소 근무로 인해 몸이 불편하지만 병원 내원이 어려웠던 이용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진료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9명 모두 소변검사는 음성(정상)으로 판별되었고 혈액검사 결과는 약 한달간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의료원 진행요원에게 내년에도 무료이동 진료서비스 지원을 상, 하반기 나뉘어 진행 요청드렸으며 3분기 진료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치과진료는 대기기간이 길다고 하셨지만 우선 진료명단에 올려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다섯번째, 메르스로 인해 연기되었던 나들이는 11월 27일 일산한화아쿠아플라넷과 임진각으로 다녀왔습니다. 모든 이용인들에게 안보교육 뿐 아니라 그 동안 근무 중 쌓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운영위원회가 종료되는 즉시 2015년 차오름 송년회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차오름 종무식은 12월 31일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11월 6일부터 진행되었던 차오름 내 개보수공사는 마감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73,000,000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건물 뒷면 콘크리트 외 1층 H빔 공사, 장판, 미장, 도장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부분은 후원업체를 물색하여 마감할 예정입니다.

개보수 공사시에 사출성형실 출입구 캐노피 판넬공사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된 요인으로 최근 NC엘이디 100ton 사출기 불량건이 다량 발생해 사출성형실이 외부와 급격한 온도차이로 인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량발생이 의심되어 판넬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물리치료실에는 침대 3개를 후원받았으며, 현재 부족한 물리치료용품 외 핫팩 등은 CJ에 후원 요청중입니다.

일곱번째로, 임면 보고입니다. 이용인 퇴사 2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31일자 김광훈 이용인, 11월 30일자 정종문 이용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워크넷, 벼룩시장 등 인력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인원보충으로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하여 이용인들의 근로능력에 맞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4분기 중요사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장 : 개보수 공사로 환경이 많이 나아졌으나 2층 작업장에 석면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석면 교체작업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석면을 뜯지 않고 그 아래에 새로 커버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참고하시고 그 외에 복도 몰딩이나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위원 : 석면철거작업은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업체에서만 철거작업이 가능하여 비용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선미 위원 :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경기도의료원 치과 무료이동 진료로 김태신이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무료이동진료도 이용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인 무료이동 진료사업으로 김태신을 비롯한 모든 이용인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웅 위원 : 네. 장선미 위원님의 말씀처럼 치과진료의 경우 진료비용도 비싸고 또 장애인들이 아파도 표현을 잘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런 무료진료가 있을 때 빠른 정보로 이용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봉식 위원 : 1층 식당은 따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박지영 위원 : 예산에 맞추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고 드린 것처럼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식당을 위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후원을 개발할 것이며 현재 현대오일뱅크 일퍼센트나눔재단에 프로포절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봉식 위원 : 프로포절을 올린다고 해도 모두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업무와 행정업무 등 종사자분들이 한해 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이 보이네요. 다가오는 2016년에도 차오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윤철웅, 박지영 위원 : 네. 이용인과 종사자가 함께 근무하기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2호 안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박지영 위원 : 2015 제2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각1,632,158,000원으로 세입예산 보조금수입 693,198,000원, 사업수입 800,000,000원, 후원금수입 24,600,000원, 법인전입금수입 110,000,000원, 잡수입 4,360,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907,960,000원, 업무추진비 4,500,000원, 사무운영비 238,200,000원, 시설비 165,848,000원, 사업운영비 15,100,000원, 사업비 298,820,000원, 예비비 1,730,000원입니다.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 거래업체 NC 엘이디 등 회사사정 어려움으로 납품이 줄어 들다 보니 외주가공비 및 일용잡급도 감소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사업수익은 감소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이용인들의 인건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제 3호 안 : 2016년 운영계획 토의

○박지영 위원 : 2016년 운영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이용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인들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스페셜 외식데이, 가정의날, 미니체육대회를 계획중에 있으며 스페셜 외식데이는 해당 월 생일자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식당에서 간단한 외식을 통해 생일을 축하하면 더 뜻깊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내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의 날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으로 가족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계획중입니다. 미니체육대회는 5월 근로자의 날에 시행예정에 있으며 근로자의날에 종사자와 이용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 종사자의 복리후생으로 힐링Day는 조기에 출근하여 조기 퇴근하는 탄력근무제입니다. 그 외 올해와 동일하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장 : 힘든 직장생활에서 작은 배려가 큰 능력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확보를 잘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모든 종사자분들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장선미 위원 : 가정의 날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보면 따로 대화 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소통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항규 위원 : 그럼 스페셜 외식데이는 이용인들의 음식기호도 반영 되는 건가요?

○박지영 위원 : 따로 선호하는 음식 기호가 반영되기 보다는 현재 예산계획에 1인당 10,000원으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사 예약전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수 종사자 및 이용인 시상이 당일 송년회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용인분들은 3명이 선정되었으며 그 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제주도 자유여행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2,000,000원 가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봉식 위원 : 2016년은 이용인들을 위한 계획안들이 아주 신선하고 근로의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에 나아가서 타이용인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근로의욕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지영 위원 :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스페셜 외식데이 외에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용인들이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항상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남에게 베풀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항규 위원 : 그럼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는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박지영 위원 : 아닙니다. 1년에 두번 명절을 앞두고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비기능보강으로 지게차, 미니버스, 착색기 장비보강을 예정중에 있으나 지게차는 올해 렛츠런재단에서 지원 받아서 그 예산은 옥상방수 쪽 개보수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 제 4호 안 : 2016년 세입, 세출예산 토의

2016년 차오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오름 2016년 세입,세출 예산은 각 1,549,830,000원으로 보조금수입 704,760,000원, 사업수입 700,000,000원, 후원금수입 1,500,000원, 법인전입금 100,000,000원, 이월금 40,070,000원, 잡수입 3,500,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005,892,000원, 업무추진비 6,000,000원, 사무운영비 234,000,000원, 시설비 53,000,000원, 사업운영비 13,988,000원, 사업비 235,220,000원, 예비비 1,730,000원입니다.

2016년 예산 중 마케팅사업비 예산이 38,720,000원으로 마케팅기사 인건비만으로도 예산이 초과되어 마케팅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방안으로는 시에서 마케팅 지원비를 인상해주지 않는 한 현재 근무중인 마케팅기사의 호봉에 따라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마케팅기사의 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마케팅기사를 신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마케팅기사를 신규 채용할 시에 업무 인수인계시 드는 시간적 손실과 작업의 능률 및 작업생산량이 동반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나아가 매출에 있어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신규 채용된 마케팅기사의 호봉 승급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어 일회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사업 지원비에 관하여 시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여 추후 2016년 1분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봉식 위원 : 종사자의 잦은 변동이 이용인들과의 친밀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와 원만한 합의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종사자 및 이용인들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윤철웅 위원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인들의 복지 증진과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내년엔 모든 사업을 진행 가능할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장 : 해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용인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운영위원장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안건 제시하실 분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미, 추봉식, 박항규, 윤철웅, 박지영 위원 : 없습니다.

○이원근 위원장 :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앞으로도 이용인의 인권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기타 안건이 없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2015년 4/4분기 차오름 시설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차 오 림
신망애복지재단

위원장 이 원 근 (서명 또는 인)

위 원 윤 철 웅 (서명 또는 인)

위 원 박 항 규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선 미 (서명 또는 인)

위 원 박 지 영 (서명 또는 인)

위 원 추 봉 식 (서명 또는 인)